국내 쌍안경 산업의 현황과 전망

글:김광주 전무이사/(주)산주

▲ 김광주 전무이사

작년은 불황 일색의 한해였으며, 이 속에서 쌍안경 업체도 예외는 아니었다. 극도로 위축된 민간 내수 부분과 수출은 금년 또한 더욱더 위축될 것으로 생각된다. 외적으로는 중국 등 동남아 국가의 저가 공세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의 가격 경쟁 등으로 인하여 채산성이 한계에 온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할 때 비관론만 있는 것이 현재의 여건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이며, 신제품 개발, 정보의 부재, 부품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쌍안경 업체의 전망을 내다볼 때 관련 종사자 각자의 의견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재까지의 방법에서 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완벽한 제품을 원하는 반면, 제조업체로서는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동남아의 제품과 같은 정도의 품질로, 제품의 가격을 내려 수출하려는 생각은 옳지 않다. 고급의 품질과 국가별 · 연령별 · 용도별로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소량 다기종 전략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모방이 아닌 창의적인 제품, 개발 부품의 정밀성, 양심적인 제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편, 좋은 부품이 결합하여 좋은 제품이 되기 때문에 광학제품의 부품 업체도 장비의 개선, 기술 수준의 향상과 관리 개선을 통하여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서로가 합심하여 좋은 결과를 낳을 때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다같이 노력한다면 국내 쌍안경 산업의 올해 전망은 밝다고 생각된다.